

첫 번째 이야기 「만남」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 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요한복음 4장 23절)



아이스 브레이크(Ice Break)

1. 간단한 자기소개를 하십시오.(가족관계, 지금 하고 있는 일, 성격, 앞으로의 계획 등)
2. 당신의 인생 중 가장 잊지 못할 만남은 무엇인지 얘기해봅시다.



말 · 씹 · 속 · 으 · 로 Into the Word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사마리아의 수가라는 마을에서 꽤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의 유명세는 빼어난 미모나 현숙한 성품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다섯 번 결혼하여 다섯 번 실패한 범상치 않은 과거, 이 기구한 인생경력 때문에 마을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게 된 것입니다.

처음부터 의도한 것은 아닙니다. 그녀 역시 다른 사람들처럼 행복하게 살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그 평범한 행복이 이 여인에게서는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잘못된 만남, 잘못된 선택이 되풀이 되면서 그녀의 인생은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리게 된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의 눈총을 외면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녀를 괴롭히는 것은 자신 안에 내재된 좌절과 죄책감이었습니다. 자신과 동거하고 있는 남자 역시 자신의 가혹한 운명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포기하였습니다. 더 이상 새로운 만남을 갖거나 사람을 기대하는 것을 포기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또 한 번의 상처, 또 한 번의 좌절을 이겨낼 힘이 없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덧 마음속에 자라난 두려움은 그녀의 마음을 병들게 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혼자입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혼자인 것을 스스로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Q1) 수가성 여인의 인생에서 만남이란 어떠한 의미였습니까?

만남을 두려워하는 그녀의 마음을 지배하는 것은 무엇이었나요?

햇 별이 내리쬐는 정오, 그녀는 어제처럼 물동이를 이고 우물가로 향합니다. 모두가 꺼리는 시간을 이용하여 사람들과 마주치지 않고 서둘러 물을 길고 돌아가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낯선 사람이 우물가에 서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자신을 쉽게 여기는 남자였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사마리아인들과 상극인 유대인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최악의 만남입니다.

어떻게든 자리를 피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빨리 물을 길고 돌아가면 된다는 생각에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 남자가 말을 걸기 시작합니다. “물을 좀 주실 수 있나요?” 여인은 통명스럽게 말했습니다. “유대인 남자인 당신이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제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그러자 남자는 온화하게 대답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하나님의 선물과 지금 물 달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 관심이 있었다면 아마 내게 도리어 물을 달라고 하였을 것입니다. 나는 당신에게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을 줄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대답이었습니다. 물길을 그릇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생수를 줄 수 있을까요? 그것도 영원히 솟아나는 생수라니 믿을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믿고 싶었습니다. 사막 같은 자신의 인생, 채울 수 없는 영혼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다면... 그녀는 정말 목이 말랐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과의 만남, 뭔가 모를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물론 마음 가운데 이러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소용없는 짓이야.’ 하지만 그녀는 다시 도전해 보기로 결정했습니다. “제게 그런 물을 주세요. 그래서 목마르지도 않고 물 길으러 오지도 않게 해주세요.”

간절한 여인의 요청에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의 남편을 데려오십시오.” 생각지도 못한 요구였습니다. 숨기고 싶은 자신의 과거, 꺼내기 두려운 약점을 건드렸기 때문입니다. 그의 말은 매우 아팠습니다. 그녀를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당신은 남편 다섯이 있었지만 지금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동거하고 있는 그 남자 역시 당신의 남편이 아닙니다.”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자신의 과거를 속속들이 알고 있다니... 그녀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이분과의 만남이 자신의 삶을 변화시켜 줄 수 있다는 소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Q2) 남편을 데려오라는 무리한 요구에 그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진실한 대답을 통해 그녀가 발견하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사실 그녀에게는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고민이 있었습니다. 바로 참된 예배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자랑치 못할 과거 탓에 제대로 예배 한번 드릴 수 없었지만 그녀는 정말 예배를 사모했습니다. 죄뿐인 인생, 망가진 자아이지만 자신의 갈증을 채울 하나님을 정말 만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고민을 해결해 줄 분을 찾게 되었습니다. 내 인생을 모두 간파하고 있는 이분이라면 분명히 해답을 주실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신은 보통 분이 아니시군요. 분명히 선지자이지요? 저에게 해결되지 않은 질문이 있습니다. 도대체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말하는 곳과 유대인들이 말하는 곳이 다른 데 무엇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요.”

그녀의 진심어린 질문에 그분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닙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올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바로 오늘, 바로 이곳에서 우리 아버지는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아버지를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예배를 기뻐하시고 반드시 만나주실 것입니다.

그녀는 기뻐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예배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아픔을 아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그분은 나의 참된 아버지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기쁨에 찬 여인은 그분께 확인하였습니다.

“당신이 바로 그분이 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실 메시아 곧 그리스도이십니까? 그분이 오시면 모든것을 밝혀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분은 대답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당신과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메시아입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입니다.” 여인은 놀랐습니다. 그리고 행복했습니다. 그토록 갈망하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더 이상 물동이가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자신 안에 솟아나는 샘물, 영원한 생명수를 마셨기 때문입니다.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외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분은 내 안의 두려움을 몰아내셨습니다. 내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이제 나는 자유합니다. 자유롭게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되었어요.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여러분, 그분을 만나보세요.” 사람들은 그녀를 이상하게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녀를 만나주셨기 때문입니다.

Q3) 예수님을 만난 수가성 여인이 대화해 감에 따라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지 아래 말씀을 통해 발견해봅시다.(아래 제시된 단어의 의미를 봅시다.)

9절)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15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으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19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29절)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Q4) 예수님을 만나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수가성 여인의 삶에는 어떠한 변화가 나타났습니까?

28절)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 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29절)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Q5) 궁극적으로 여인이 발견한 생수는 무엇입니까?

Q6) 영원한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여인에게 주어진 선물은 무엇입니까?

“죄의 삯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로마서 6:23)

“믿는다는 것은 복음서에 제시된 대로 단순히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것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이는 자신의 의지적인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 만약 내가 성경에서 나온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지하여 예수님을 진지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기꺼이 영접할 때, 다시 말해 예수님이 자신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 그리고 자신을 대속하시고 다스린다는 것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그는 믿는 자가 되는 것이다.” (토마스 브룩스)



잘 못된 만남과 선택으로 불행한 인생을 살던 수가성 여인은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난 후 변화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 자신의 아픔을 솔직하게 고백한 그녀는 영혼의 갈증을 해결할 영원한 생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그녀는 비로소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참된 예배의 기쁨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인을 만나기 위해 사마리아 수가성을 방문하신 예수님은 당신을 만나기 위해 오늘 이 곳에 계십니다. 당신은 그동안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이 있습니까? 죄인의 친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영생의 기쁨을 느낀 경험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서는 지금 당신을 영원한 생명의 길로 초대하십니다. 그 길에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행복한 만남이 있으며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기쁨이 넘칩니다. 만일 당신이 예수님을 만나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있다면 그 기쁨을 함께 나눠 주시고 혹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 구원을 얻기 원하신다면 아래의 기도문을 읽으며 함께 고백하기 바랍니다.

하 나님 아버지, 나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 영원한 생수를 얻은 것처럼 저도 영원한 생수를 마시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제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기 원합니다.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십시오. 나를 떠나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영원한 사랑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주님만 믿고 살겠습니다.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며 살기 원합니다.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떠나지 않습니다. 주님과의 동행을 항상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영접한 그 순간부터 살아 계신 그분은 당신 안에 거하시며 당신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 하나님은 결코 당신을 떠나지 않으십니다.